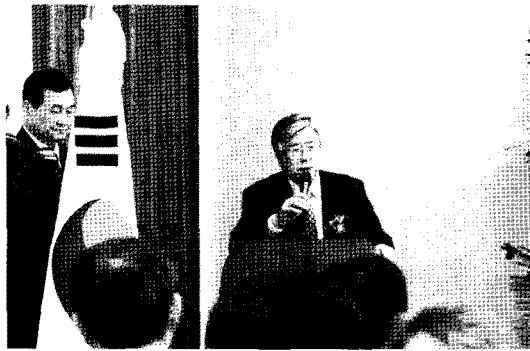


# [업계소식]

## ◆ KPCA 이경호 회장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20대 이사장 피선”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17일 63빌딩 글로리아홀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갖고 20대 이사장에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 조합원과 목재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추대하였다.

이경호 대표이사는 물류표준화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직에도 취임하여 협회 5대 회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도 나선다. 업계발전을 향한 이경호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 ◆ 생수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물류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송용 랙(RACK) 랙은 수십개에서 수십톤에 달하는 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지지하고, 효율적인 물류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프레임이다. 이 랙의 품질에 따라 제품 물류과정의 효율성이 좌우된다. 더구나 이동랙은 웬만한 개발기술과 생산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련시장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정밀하고 세밀함을 요구한다. 초정밀 가공기술을 비롯해, 특수 접합처리기술, 고난도 특수 생산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류 운반, 수송용 파렛트, 랙 제작 전문 기업 (주)골드라인(www.igoldline.kr) 이홍기 회장은 바로 이 부품개발에 평생을 바쳐왔다. 완벽한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과 연구개발로 고객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0여년 동안 ‘물류기기 개발은 측은지심(惻愍之心)에서 부터’ 라는 경영이념으로 ‘외길인생’을 걸어온 그가 이번에 획기적인 ‘생수이동랙’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생수이동랙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현재 골드라인에서는 안전한 형태의 외관과 다양한 규격의 제품,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신개념의 ‘생수이동랙’이 기존의 제품을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두산인프라코어,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본격화

2014년 친환경-고효율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목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5일,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배기가스는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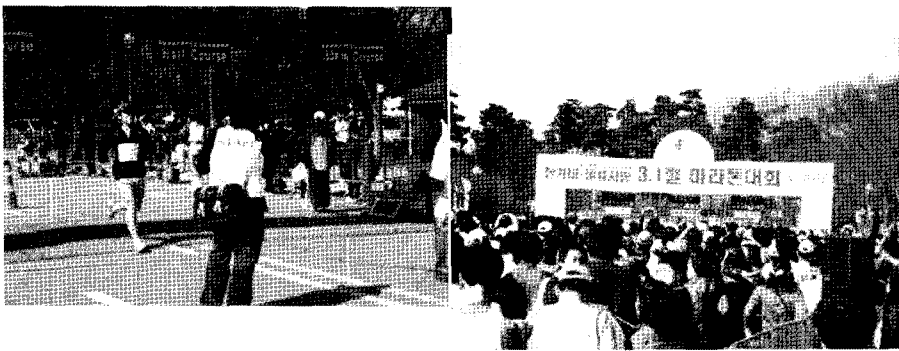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자금을 지원받는 이번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프로젝트에는 2014년까지 총 180여억원이 투입되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주관하고 국내외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하이브리드 굴삭기란 디젤엔진을 사용하면서 평상시 남은 동력을 전기로 저장했다가 과부하 작업시 저장해둔 전기로 부족한 엔진 출력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료의 과소비와 배기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형 굴삭기로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동기 및 전력전자분야 핵심 부품업체인 코모텍과 에이디티를 포함해 각 분야별로 두산모트롤, LS엠트론, 서울대,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유압시스템과 전력전자 분야의 세계적 연구팀인 독일 아헨(Aachen)대가 참여한다.

## ◆ (사)한국물류협회 제 2 회물류사랑 3.1 절 마라톤대회

3월 1일(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



한겨레신문사와 (사)한국물류협회 공동 주최로 3.1 운동 90주년을 기념하며, 국가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많은 물류기업 및 일반인들이 참석(약 5천여명 출전)하였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대한통운, LogisALL 등 물류업체 마라톤 동호회 인원등 일반인 포함 5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각자 신청한 5km, 10km, 하프, 30km 총 4개의 코스를 참가 완주하였으며, 물류인들의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금년 대회에서는 30km코스에서 박종욱씨(남자부분), 오숙정씨(여자부분)가 우승했다. 하프코스에서는 김광호씨(남자부분)와 오상미씨(여자부분)가 10km코스는 장성연씨(남자부분)와 한미경씨(여자부분)가 우승했다.

마라톤과 물류산업은 꾸준히 노력해야 완주할 수 있고, 소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 닮았다. 이번 물류사랑 3.1절 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많은 물류인들에게 힘든 경제 상황이지만 언젠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발걸음이 되었으리라 본다.

## ◆ (사)한국물류협회, 2009년 정기총회 개최

서병륜 회장, 협회장직 유임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2월 19일(목) 오후 2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창립 25주년인 올해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물류분야 대표기관으로서 물류인력양성 및 경영혁신 전문기관임을 자부하는 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물류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물류혁신과 합리화를 주도하는데 힘쓰겠다고 금년도 사업기본방향을 밝혔다.

협회는 물류혁신사업 콘텐츠의 내실강화, 화주기업 대상의 회원사 확대, 국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교류협력 증대, 물류전문가를 개발하는 물류전문인력양성교육 전개, 수요자중심의 물류분야 HRM사업의 성장기반 구축, 정부위임사업의 성공적 추진, 녹색성장 물류분야 활동사업의 발판을 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 ◆ 물류효율화 위한 한·중 협력회의 개최

물류정보 효율화와 복합운송에 관한 협력 방안 논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4회 한중물류협력회의를 우리나라 주최로 개최했다.

우리측의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과 중국 교통운수부 평정린 부부장(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교역물동량의 무선전파인식(RFID) 기반 화물 위치정보 확인, 전자문서교환(EDI)·물동량 인식 코드 정보 등 물류정보 표준화,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류 등을 논의 하였다.

양국간 교역물동량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RFID 기반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의 양국간 상호 연계를 위하여 중국의 항만이나 물류거점에도 RFID 기반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실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화물차량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상대국 항만에 카페리 선박으로 입항하여 도착국의 도로를 주행한 후 최종 목적지에 화물을 배송하는 육상해상 복합 화물운송에 관한 협력방안도 논의 되었다.

지난 제 3회 한중물류협력회의에서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각 교육 기관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첫 성과물인 양 교육 기관간 MOU(인하대와 상해해사대, 인하대와 장안대)체결식이 이날 행사와 함께 진행 되었다.

## ◆ 항만 배후단지 2015년까지 확장 조성

2009년 말까지 입주기업 선정 예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의 배후단지를 환적화물 유치와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위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 항만활성화 및 국내 경기침체 극복에 기여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물류기업을 유치할 항만배후단지는 부산신항(176천㎡), 광양항(211천㎡), 평택·당진항(1,068천㎡)으로 항만별로 입지적 장점과 유치희망 업종을 고려하여 부산신항은 7월, 광양항은 3월, 평택·당진항은 5월에 각각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 서류 접수와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2009년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배후단지에 선정되는 입주기업이 시설물을 완공하여 본격 가동·운영되는 2010년에는 649천TEU의 추가 물동량 창출 및 11,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봤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 부산신항(1,095천㎡), 광양항(1,587천㎡), 평택·당진항(1,223천㎡) 등에 고부가가치 물량창출 항만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조성하여 동북아 허브 항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20배 인상은 부당

대한상의 지역 상공인과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난 1월 16일 울산상의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김미진 대인화학(주) 부사장은 이같이 말하고 "플라스틱은 가격도 싸고 대체품도 흔하지 않아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해도 친환경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플라스틱 중 대부분은 폐기물이 아니라 금속처럼 용융해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과 달리 산업용자재는 플라스틱 부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kg당 7.6원 수준인 폐기물 부담금을 2012년까지 kg당 120원 수준으로 20배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 ◆ RFID 통해 전유럽 파렛트 위치 파악

유럽파렛트협회, 5억개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RFID 태그를 이용한 대규모 파렛트 위치 추적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파렛트협회(European Pallet Association 이하 EPAL)는 스위스에서 1,000개의 파렛트를 추적하는데 EPC Gen 2 수동형 RFID 태그를 통해 1,000개 파렛트를 추적하는데 성공했으며, 내년에는 다른 국가로도 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파렛트 품질 보증 및 파렛트의 수리 내역에 대한 정보 입수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유럽의 파렛트 재고를 파악하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허가, 송장발송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을 것으로 EPAL측은 기대했다.

EPAL 측은 이번 시범사업의 태그 관독 능력과 파렛트 식별 속도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최종 목표는 RFID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5억 개의 파렛트 식별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수출입 목재포장재 간편하게 검역할 수 있어

수출입 목재포장재검역요령제정(안) 설명회 열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 5일 경기도 안양의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은 기존의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을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업체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설명회에서 목재포장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설명회에서 검역원은 이번에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식물방역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목

재포장재 검역요령의 규정에 새로이 반영하고, △기존의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14호)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검역요령(식물검역원 고시 2006-8호)을 통합하여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 목재포장재검역요령 중에서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선 검역관 및 업체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업체의 업무 지원을 위해 『열처리업체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으로 소독내용을 입력하고, 정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지경부, 2009년 RFID/USN분야에 339억 투자

2009 정부/지자체 u-정보화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 선정



한국RFID/USN협회(회장 김신배)가 지난 2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T관련 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정부/지자체 u-정보화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 위기로 시작된 실물경기의 침체, 세계적 경제 위기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재정지출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성 사업 및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2009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기업의 특허 대응,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 등이 안내되어 각 기업이 현재의 불확실한 사업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 ◆ 일본, RFID 활용 국제 물류의 효율화 향상 추진

국제 표준화 기관 'EPCglobal'에 표준화 제안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월 10일부터 2개월간 일본의 물류 및 IT 기업들과 함께 국제 표준 규격으로 제안하기 위해 준비해온 전자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 국제 해상 운송 환경 하에서(일본-네덜란드 간) 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전자 태그의 국제 표준화 기관인 'EPCglobal'에 표준화 제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물류 정보와 상거래 정보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실현, 수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의 실현을 이루게 되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 전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노리게 된다.

이러한 기술이 실용화되면, 기업은 자사 제품의 공급망(supply chain) 전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정보(화물의 탑재 내용 및 위치 정보 등)는 물론, 물류 정보와 상거래 정보의 연계 강화에 의한 업무의 효율화와 향후 통관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통해 수출입 절차의 효율화까지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실제 해상 운송의 환경 하에서 여러 운송 형태(컨테이너, 파렛트, 카톤 등)에 적합한 전자 태그를 화물에 부착하고 자동적으로 화물의 가시화 정보를 취득하여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 “그린물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다”

지난 2월 11일 녹색물류학회 창립을 기념해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산업·학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표준협회 이강대 박사는 ‘녹색물류 시대에 대비하는 서로 다른 상상력의 만남’이란 주제를 통해 “물류산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제는 물류가 단순 서비스,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기술·문화·이미지가 접목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녹색물류 정책 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공급망 및 물류 운영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개념이 업계의 중요 이슈로 부각됐다”면서 “앞으로 그린 이슈는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연구원은 녹색물류 3대 구축 전략으로 △녹색물류 수송체계로의 전환 △녹색물류 인증제도 및 민관협력 추진기구 도입 △관련 법·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녹색물류 활동이 기업물류 성과에 미치는 영향 △CO2 배출을 고려한 지자체의 녹색물류방향 등이 주제로 발표됐으며, 선진국에서의 녹색물류 성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